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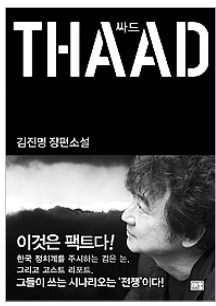
친구도 적도 없는 국제정치의 '민낯' 드러난다

THAAD 싸드

김진명 지음

'세월호 참사'에 묻혔으나 지난 6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커티스 스캐퍼로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 싸드(THAAD)를 전개(배치)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힌 때문이다. 중국측은 "싸드의 한국배치는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며 우리를 표명했고 우리 정부도 진화에 나섰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싸드가 동북아 정세에는 '뜨거운 감자'라는 방증이었다.

이런 '긴박함'은 소설가 김진명씨가 장편 '싸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핵문제를 다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줄곧 한반도 정세와 역사문제를 다뤄온 작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였을 것이다. 싸드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 탄도



급박한 정세에 '고구려' 집필 중단하고 쓴 소설
미사일 방어체계...중국과 미국 사이의 선택은?

미사일을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MD)

것으로 만드는 심각한 위협임이 드러난다. 저자는 '시대를 읽어온' 작가답게 소설 속에서 친구도 적도 없는 국제정치의 민낯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특유의 추리소설 기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놓은 문장에서는 현실과 픽션의 경계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태프트 리포트'로 명명된 미국정보부 보고서에는 채동욱,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김문수 등에 대한 생생한 분석이 담겨있다.

작가는 책 머리말에 집필 중단 이유를 밝혔다. "싸드"를 받으면 중국을 잃고 안 받으면 미국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지를 나는 독자와 생각해볼까 싶은 것이다." <새움출판사·1만42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진명

행복한 책 읽기 레프 톨스토이의 '크로이체르 소나타'

(평권클래식코리아 펴냄)

레프·톨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결혼의 윤리관을 제시한다. 아내의 불륜 사실에 분노해 살인을 저지른 주인공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소설.

정확히 불륜의 장면은 묘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짙은 문장의 수사와 주인공의 심리 묘사, 장면 묘사로 정황을 드러낸다. 이 소설은 베토벤의 음악을 주제로 삼았으며 톨스토이의 자전적인 소설이다.

결혼생활이 불행했던 톨스토이의 고뇌. 그는 문명에 대한 저항감과 부패한 상류층, 사회에 만연한 불륜, 사랑 없는 결혼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크로이체르 소나타)'을 들으며 소설을 읽는다. 그의 예술관이 소설에 반영된 23장.

"그들은 베토벤의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처음 나오는 프레스토를 아세요? 아시나요?" 그는 소리쳤다.

"오.....! 이 소나타는 정말 무시무시한 음악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음악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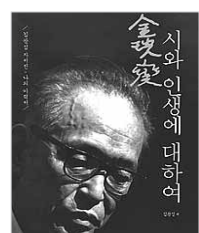
프레스토(매우 빠르게) 부분을 집중해서 듣는다. 음악의 분위기와



새로 나온 책

▲바티칸: 바티칸 회화의 모든 것=바티칸 미술관에 전시된 19세기 이전 유럽 거장들의 모든 회화를 비롯해 프레스코 벽화에 300여 점이 넘는 현대 회화, 조각, 태피스트리 및 기타 예술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총 976점의 예술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에는 각각의 작품 모두 제목과 작가, 연도, 작가의 출생 및 사망 년도, 재료를 비롯해 바티칸 내부에서의 작품 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시그마북스·8만원>

▲시와 인생에 대하여=성북동 비둘기, '저녁에' 등으로 잘 알려진 시인 김광섭의 자서전. 자서전에는 그의 출생부터 세상이 떠나기 직전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실제로 그는 이 글의 연재가 끝나고 몇 개월 후 세상을 떠났으니 생애 마지막 글인 셈이다. 시인이 쓴 자서전답게 시인 특유의 글 냄새가 있고, 시와 인생이 있다. '극예술연구회', '팬클럽' 등에 참여하



게 된 동기나 활동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적고 있다. <한국기록연구소·1만2000원>

▲메가 수도권의 발전 비전과 전략=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변영과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메가 수도권의 향후 20년을 내다본 비전과 전략 구상 제안서. 책은 서울·인천·경기 대도시권 성격에서 탈피해 메가 대도시권 성격으로 수도권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충청권·강원권·개성 황해권이 포함돼 한반도의 중심 권역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 <한울·3만8000원>

▲죽음을 원할 자유=존엄사,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 저자는 인간의 신체에 과도하게 개입해 우리의 신체적 자율권을 빼앗는 현대의학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다. 늙는다는 것, 그로 인해 질병을 얻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소리이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은 노화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반드시 고쳐야 하는 장애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명랑한지성·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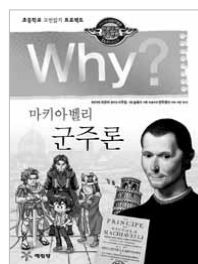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자본주의를 대체할 다양한 대안경제 형태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준다. 주류 경제를 뒤집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급진적인 생각의 도구들을 모아놓은 이 책은 대안경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일종의 교과서 역할을 한다. 타자들과 공존하는 경제, 타자를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경제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동녘·1만6000원>

▲프리덤 서머,1964=자유와 정의, 민권운동의 이정표. 1964년 여름,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목숨까지 걸고 수많은 백인 청년학생들이 미시시피로 가는 버스 앞에 섰다. 같은 시각 또 한 무리의 미국 젊은이들은 수렁에 빠진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자원한 700명이 넘는 대학생은 인종분리와 백인우월주의, KKK의 본격적인 남부로 가기 위해 모여 버스 앞에서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를 부른다. <삼천리·2만5000원>

어린이 책

▲Why? 마키아벨리 군주론=어린이들이 인문고전에 관심을 갖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인문고전학습판화 시리즈. 도덕적 기준이나 이상적인 이론에 얽매지 않고 어지러운 시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정치모델을 제시한 마키아벨리와 그의 저서 '군주론'의 의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림당·1만1000원>



▲사이렌=잃어버린 일기장'을 쓴 전성원 작가의 두 번째 장편동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

국가 통제 시스템에 의해 자라난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하다. 작가는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안은 국가 통제 시스템이라는 큰 틀 안에 담아내다가 이를 미래 사회의 명암을 밀도있게 풀어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그레구아르는 눈으로 말해요 외 3권='장애 함께 알기 프로젝트' 시리즈. 언어 장애 친구 '그레구아르는 눈으로 말해요', 불안 장애 친구 '엘리자베스는 실마가 두려워요', 지적 장애 친구 '조에는 늘 예쁘게 웃어

요, 알츠하이머 가족을 둔 친구 '할아버지는 다 잊어버려요'를 통해 '장애 함께 알기'를 이야기한다. <씨드북·각 권 1만1000원>

▲정말 좋은 걸까?='원자력 발전 정말 안전한 건가요? 왜 해야 하나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원자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그림책.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만 보고 '좋은 것이겠지'라고 미뤄 짐작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이 무엇인지, 정말 좋고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풀빛·1만2000원>

피아노 앞 남녀 음악으로 내통하기

소설 문장이 절묘하다 싶으면, 오호! 라는 찬탄을 하면서, "그날 저녁의 아내와 같은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빛나던 눈, 엄숙하고 의미 있는 표정, 연주를 끝내고 나서의 뭔가 오롯한 느낌, 입술에 피지던 연하고 애잔하며 촉촉한 미소가 생각나는 군요."

"우리는 음악을 좀 연습했습니다....."

"오시는 줄 몰랐어요....."

동시에 아내가 그의 턱에 맞추어 입을 열더군요. 그러나 그와 아내 둘 다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해서 단검으로 찔러 죽인 주인공 포즈드니세프는 마침내, 용서를 본다. 그의 '용서'라는 낱말 속에는 질투가 너무도 엄청난 파국을 몰고 왔다는 데 대한 참회다. 그것은 톨스토이의 윤리관이기도 하다. 그는 사랑과 결혼의 본질에 대해 끝없이 고뇌했다.

음악은 중독성이 강하다. 모 방송사의 드라마 '밀회'는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했다. 주인공인 피아노 천재와 미모와 지성을 갖춘 피아노 연주자외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획득(?)한다.

이 드라마는 음악애호가에게는 무척 끌린다. 피아노 앞, 그들 남녀의 밀회는 뜨겁고 아련하고 절망스럽고 안타까웠다.

인기 드라마 속에는 시대의 트렌드가 숨어 있다.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열정을 따를 것인가. 결혼의 윤리를 따를 것인가.

대답은 시대성이 아닌 윤리성에 내재되어 있다.



▲사과드립니다="7월 11일자 '행복한 책 읽기'에서, 김현주의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에 대한 저의 견해는 식민사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저자의 명예에 누를 끼쳤음을 사과드립니다."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신춘문에 소설 당선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dtjs12@hanmail.net

